

순창형 K-푸드 콘텐츠 선보인다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 15~16일 개최… 주민과 함께 축제 준비 마무리

순창발효관광재단과 지역 주민들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준비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재단은 최근 순창읍과 각 면 주민들과 함께 ‘읍·면 떡볶이 시연 행사’를 열고, 축제 기간 운영될 주민 참여형 떡볶이 판매 부스의 조리 방식과 운영 절차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시연 행사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한 ‘우리 동네 떡볶이’ 메뉴가 공개됐다. 참가자들은 순창 고

추장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떡볶이 레시피를 선보이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특히 축제의 핵심 재료인 순창 고추장은 오랜 발효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깊고 풍부한 맛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순창 고추장을 중심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순창형 K-푸드 콘텐츠를 선보여질 예정이며, 순창의 고유한 식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순창발효관광재단 관계자는 “읍·면

주민들이 참여한 이번 시연 행사는 축제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 상징적인 자리였다”며 “남은 기간까지 철저히 준비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타’는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일원에서 열리며, 다채로운 체험과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전국의 미식가들의 발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최영일 군수 특강·유공 농업인 표창 수여·공연 등 진행

순창군은 11일 장애인체육관과 일품공원 일원에서 ‘제30회 순창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수확의 결

실을 거둔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작목반 및 생산자 단체 회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1부에서는 식전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최영일 군수의 특강, 유공 농업인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최영일 군수는 “돈 버는 순창 농업 실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순창군이 추진 중인 주요 농정 정책과 함께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바로잡고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도 제시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참석자 모두가 농업인의 자긍심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일품공원에서 종식을 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난타와 라인댄스 공연, 읍·면 대표 농업인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이 펼쳐져 현장을 찾은 농업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11일 장애인체육관과 일품공원 일원에서 ‘제30회 순창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임실군 지사면, 제10회 관터 그려그려 축제 성료

지사면 관기마을 공동체 축제인 ‘제10회 관터 그려그려 축제’가 관기마을 회관 광장에서 많은 주민과 향우회원, 귀농인, 학생 등의 참여 속에 지난 9일 성황리 개최됐다.

관터 그려그려 축제는 2013년 관기마을 주민과 출향인들이 대봉감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역의 원주민과 귀농인 간 갈등 해소 및 공동체 화합을 위해 출범했고, 2015년부터 공식 축제로 확대,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축제의 유래가 담긴 ‘관터’는 관기마을의 옛 이름에서 비롯됐으며, ‘그려그려’는 전라도 방언으로 함께 공감하고 화합한다는 뜻을 담아,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결속을 동시에 상징한다.

올해 축제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 내 세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마을 주민과 향우회원, 귀농인, 지역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마을의 안녕과 풍



요를 기원하는 기원제와 개막식, 관터 농악단의 전통 풍물 공연, 대봉감 따기 체험, 주민과 학생·귀농인이 어우러지는 장기 자랑과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두가 함께하는 농촌축제의 진수를 선보였다.

/임실=진홍영 기자

유기 동물과 함께하는 캠핑 열려

‘임실로 떠나는 입양 교감 캠핑’ 통해 반려 문화 활성화 나서

임실군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유기 동물과 함께하는 ‘임실로 떠나는 입양 교감 캠핑’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입실군 반려정책과 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에 한층 박차를 가했다.

이번 행사는 입실 유기동물보호소의 보호견 12마리와 이들과 함께할 입양 보호자 10팀, 그리고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 가족 10팀이 참여해 오수국민여가캠핑장에서 1박 2일 함께하며 정서적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첫날 반려동물 화식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원광대학교 RISE 사업단과 연계한 △펫테이블 교육 △강아지 입양 전 알아야 하는 필수 동물복지 및 법률교육 △반려견 심폐소생술 △동물교감테라피 및 인식표 만들기를 진행했다.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반려인으로써의 책임과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함께 하는 △교감의 밤 △임실치즈테마파크 산책 △추억 카드 작성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캠프는 앞서 열린 두 건의 축제에서 입양 성과를 거둔 뒤의 연계사

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노인맞춤돌봄 시범사업 빛났다

노인복지관 ‘최우수기관’·사회복지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5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합평가 시범사업에서 남원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각각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전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중 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종합평가는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사업관리 △가점 등의 평가지표에 의거 진행됐다.

최우수기관인 남원시 노인복지관과 우수기관인 남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장관 상장 및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부 및 안전 확인,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을 강화하고 있으며, 3개 기관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춘향장학재단 이사회 개최

재단)춘향장학재단(이사장 최경식)은 11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제8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에서는 임원 선임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6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남원장학숙’은 신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내년에 시설 개선사업에 약 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사무실로 사용 중이던 공간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독서실 노후 시설 정비, 기숙사실 도배·장판 교체, 욕장 방수 및 외벽 보수공사 등도 추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시, 제2회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 10일, 제2회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명예도로명 부여 및 도로명 변경 후보군 선정과 서부로의 도로명 변경에 대하여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위원회는 도로명, 명예도로명 등의 주소 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위원장(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분야 전문가 등 위원 8명이 참여하여 총 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명예도로명 부여와 도로명 변경 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후보군 선정 심의를 하였고 심의 결과 황진 장군, 김주열 열사, 이석규 열사, 조경남 장군, 여류사인 김삼의당, 독립운동가 이석기, 황찬서 등 7명의 남원 출신 역사적인 인물과 국제 교류와 우호증진을 위한 자매결연도시 염성시를 선정했다.

또한 남원시의 서쪽 외곽을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로’를 남원 출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큰 공을 세웠지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황진 장군’으로 도로명을 변경, 명예도로명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서부로’ 도로명은 2026년 상반기에 ‘황진 장군로’로 변경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11일, 2025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NH시네마를 선정하고, 인증표지 부착과 함께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선정,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이 없고 건축·전기·가스·소방 등 관계 법령 위반 사례가 없는 업소 중, 영업주의 화재 예방 노력과 안전의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영업장은 인증 표지가 부착되며, 2년간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